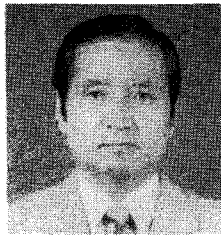


# 국제경쟁력과 고품질 생산기능을 갖춘 기술집약산업으로 육성할터



전 기 영

경기도 축산과장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인구 1700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있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현재 우리도가 보유하고있는 주요가축은 한우가 36천농가에서 174천두를 사육하고있어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젓소는 14천호의 233천두로 47%, 돼지와 닭이 각각 20천호의 1,583천두와 22천호의 23,954천수로 전국의 31%와 33%를 점하고 있어 수적인면에서도 절대적인 우위에있고 분포도 상당히 밀집되어있어 수도권인구의 축산물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을 맞으면서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의 확대, UR여파, 산업화 추세에따른 농촌여건의 급변, 축산공해 문제, 인건비 상승등 국내외적인 수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등 현안문제들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가장 심각한 실정에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이제 우리도는 우리앞에 닥쳐온 여러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축산을 다가오는 국민소득 1만불의 지방화시대에 맞는 농가의 주소득원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므로써 확고한 소비기반구축은 물론 거센외풍도 막고 나아가서는 수출산업으로 기여케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아래와같은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92년 축산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다른도에 비하여 가축의 생산성과 기술축적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는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면치못하고있는 실정이므로 축산물이 경쟁력과 고품질 생산기능을 갖추도록 기술집약산업으로 육성키위하여 가축사양기술의 전문화로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젓소의경우 초창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젓소가 보급되어 경기도의 낙농은 역사도깊고 사육두수도 많

이 보유하고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향상에 주력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91년부터 도종축장에 조사료 분석기기를 확보하여 누구라도 양축농가가 분석을 의뢰해올 경우 조사료의 성분분석을 해주므로서 농가에서 급여하고 있는 조사료의 성분을 판단하여주고 나아가서는 적절한 농후사료 급여량을 결정하여 사료의 손실을 없애고 생산량의 증가를 기할수있도록 하고있으며 앞으로 농가의 사양방법, 사료급여량의 처방을 해주는등 년차별로 대농가 지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조사료생산용 기계도 확보하여 종축장 인근부터 희망 양축농가에 대한 작업을 대행하여 주는것은 물론 기계화가 어려운 농가까지도 기계를 활용할수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인력난을 덜기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하겠으며 부락별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를 조성, 공동기계화 작업반을 운영하여 참여농가뿐만아니라 인근농가까지 파급효과를 거양토록하여 농촌노동력부족및 고임금에 대처토록하기 위하여 '91년도에 210백만원을 투입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3개소를 조성한데이어 '92년도에 280백만원을 들여 4개소를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는 통계숫자를 보면 수소비율이 전국이 31%인데비해 본도는 62%, 2세이상인 전국이 43%, 경기 19%인것을 보면 알수있듯이 우리도는 비육사업 위주로 한우를 사육하고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는 육질을 향상시켜 고급육 생산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비육을 향상과 한우 고유품미를 갖춘 토속축산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하여 도종축장에서 한우 능력검정사업을하여 우량축을 선발, 번식에 이용하고 도내 3개소의 한우개량단지를 조성하여 순수개량방식에 의한 능력향상및 육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강화도에 한우와 사료레 교잡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생산비를 절감코져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91년 225개소에 이어 '92년도에 계속 4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여 인건비

절감에 의한 생산성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돼지와 닭은 현재 계열화생산을 하고있는곳이 도내에 11개소가 있으나 이를 점차 확대하여 생산, 유통과정의 낭비를 없애고 생력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이제 축산물도 얼굴있는 상품으로서 품질로 경쟁할수있도록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져 합니다.

다음은 축산공해 방지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축산공해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86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간이저장조를 설치하여 '91년까지 12,058기를 설치완료한바 있으며 '92년도에는 계속하여 2,876기를 더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내 16개 시군에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 1대씩을 지원하여 지역축협에서 운영중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거름을 필요로하는 농지나 과수원에 살포하여 주므로서 축산공해도 방지하고 비료자원으로 활용하므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지역이나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톱밥 발효시설, 축분발효시설, 공동저장탱크, 정화시설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축산공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축분을 상품화 하므로서 농가의 소득도 높이고 공해도 없앨수있는 축분비료공장 설치를 중앙에 건의하여 일부지역은 설치가 가능하고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만으로 공장설치를 할수있도록 반영할계획임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짐을지을때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하는것과같이 축사를 지을때는 꼭 정화시설을 생각하여 시설하므로서 우리지역에서 축산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년 한해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기고 획기적인 축산발전을 이룩할수있는 발판이 되도록 축산분야에 몸담고있는 우리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 나갑시다.